



北行하면 雙溪寺가 約 6km의 가까운 距離에 있다.

二、佛 像

平面이 半圓形으로 된 臺座上 臺石과 尖端이 둥근 舟形光背와 佛像이 花崗岩의 單一石으로 된 如

來形 立像으로 兩手が 折損 缺失된 것을 後補한 것 以外는 거의 完全하 고 表面에 아무런 粉粧도 하지 않아서 原形이 잘 保存되어 있는 편이다.

臺 座

下臺石은 一〇〇cm × 六三cm의 四角形으로 높이는 地中에 埋沒되어 알 수 없고 前面에는 單瓣 十一葉의 覆蓮과 兩쪽 귀에 四葉의 花形 하나씩 을 浮刻하였으나 手法이 아주 素朴하며 石質도 若干 差異가 있는 것 같 아서 上臺石 以上の 佛像全體의 분위기와 一致되지 않는 느낌이 있다. 上臺石은 直徑 八五cm의 半圓形의 前面에 複瓣 十一葉의 迎蓮이 새겨지 고 그 밑에 亦是 十一葉의 華盤(?) 같은 것이 仰蓮을 받치고 있다. 仰蓮部의 高 一五cm 받침部 九cm 上臺의 全高는 二四cm인데 이 받침 밑에 中臺가 缺失된 것으로 생각된다.

像 容

頭部는 素髮에 肉髻가 比較的 크고 兩耳는 길게 垂下하였으며 半開한 兩眼은 眼尾가 若干 올라 갔고 口脣은 작은 편이나 턱과 목의 三道가 豐滿하여 그 慈悲스러운 모습이 한층 強調되고 있다.

通肩衣의 옷자락은 左右 對稱이 嚴格히 지켜졌으나 그 衣褶은 纖弱한 線으로만 表現되어서 辟 形式化되고 말았다.

手印은 寫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목부터가 後補한 것이지만 그 形態로 봐서 與願 施無畏의 通印形을 推測하기가 어렵지 않으며 左手는 藥壺를 든 手印의 可能性도 없지 않을 듯 하다.

光背는 前述한 바와 같이 끝이 둥근 舟形에 頭光과 身光을 單線으로 浮刻 表現한 單純한 形態로 되어 있으나 그 側面에는 上半部(佛像의 胸部 以上)에 直徑 一cm 가량의 圓孔이 不同한 間隔으로 頂部에 까지 配置 되어 있다.

이 光背의 表面에 火焰 등 아무런 裝飾이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러한 壯嚴을 하기 위한 구멍이 아닌가 싶어서 興味를 느꼈다.

佛像高 一九一cm 佛像幅(肩) 六一cm 光背高 二二〇cm
光背幅(肩部) 八五cm 總高 二五五cm

이 佛像은 衣褶이나 臺座 光背 등의 彫刻이 形式化하여 纖弱한 感이 없지 않으나 全體의 均衡이나 立體感이 比較的 잘 잡혔고 또 面相의 圓滿한 表現 등이 高麗期의 作品中에서는 좋은 편에 들 것이다. 특히 半圓形의 臺座와 上臺 以上の 佛像 光背가 單一石으로 된 것, 光背의 周緣에 壯嚴을 施設한 흔적 같은 것은 재미 있는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東萊 新岩里 打製石器 一括

任 孝 宰

I

지난 一九六六年十一月二十九일부터 十二月 七日까지 서울大學校 考 古人類學科 二學年生 李白圭와 함께 慶南 東萊郡 西生面 新岩里와 西生 洞을 連結하는 約 一〇km에 達하는 海岸一帶의 先史時代 遺蹟을 調査하 였다. 그 結果 新岩에서 內陸으로 約 二km 떨어진 龍洞에서 三〇餘基의 支石墓群을 發見하였고 新岩里 西生中學校 實習地에서 多數의 魚骨文土 器(新岩 A 遺蹟)(齊藤 忠·考古學 雜誌 二五卷 六號) 以外에 隆起文土 器(新岩 B 遺蹟) 發見하였다. 특히 新岩 B 遺蹟의 경우 典型的인 魚骨文 地點에서 隆起文系土器 및 斑岩製 打製石器를 出土하는 새로운 遺蹟을 (新岩 B 遺蹟) 發見하였다. 특히 新岩 B 遺蹟의 경우 典型的인 魚骨文

系土器類는 全無이며 主로 隆起線文 또는 隆起文으로 口緣部 및 器腹部를 채우는 土器片(帶狀 손잡이 一個 無文平底部 三個)이 出土되고 있고 놀라울게도 同一 包含層內에서 打製石器一括 (石英製一點 shale製一點 斑岩製 三六點)이 出土되었다. 이러한 打製石器一括은 그 製作方法과 技術上 片面加工의 剝片系 舊石器와 共通된 特徵을 찾을 수 있고 또한 選擇한 材料面에서도 一部 共通되는 點이 있어 우리나라 打製石器研究上 公州郡 石肚里 石器 出土 以來 重要한 資料를 提供한 貴重한 出土品이라 하겠다.

II

新岩里는 元來 蔚山郡에 屬하였으나 一九六三年 行政區域 改編으로 東萊郡에 編入된 東海南郡 海岸에 位置한 곳으로 蔚山市와 釜山市 中間地點에 該當된다. 釜山에서 卞一으로 約 三時間 所要되며 西生驛에서 四km 程度 걸으면 新岩里 初入 支路를 지나게 되며 釜山-西生間 車道를 따라 右로 90 急廻轉하여 傾斜面을 내려가면 標高 八六m의 山을 基點으로 그리 높지 않은 支脈을 海岸 近く까지 接近시키어 防風作用을 하고 또한 濟州·對馬 兩暖流가 흐르기 때문에 恒時 南國의 薰風만 을 즐기며 사는 新岩部落이 海岸에 面하여 백백히 들어서 있다.

問題의 打製石器를 出土한 遺蹟은 이 野山의 末端, 李保榮氏 所有 밭이며 現 道路傾斜面과는 逆으로 傾斜된 花崗岩(一m—二m 五〇cm) 上에 道路와 나란히 二五cm에 걸쳐 遺物 包含層 斷面을 露出한 狀態로 있다. 周圍에는 소나무가 稠密하게 자라고 있고 龍洞 一帶의 山間 支路를 合流, 野山의 北端을 지나 新岩 海岸으로 流入하고 있으며 이 遺蹟에서 現 海岸線까지는 約 二〇〇m이지만 東海岸이 隆起된 事實을 생각하면 從來에는 더욱 가까운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西生面 面事務所 後方으로는 野山의 南의 龍洞으로 通하는 지름길이 있고 바로 李保榮氏 先親의 墓를 지나게 되는데 이 墓에서 一四m 西方 李保榮氏 所有 밭 一·五×三 平方m의 簡單한 試掘의 結果 다음과 같은 層位를 알 수 있었다.

- I層(二〇cm) 軟黃色 砂質層 一〇cm크기 자갈, 木炭片 三個
- 表土(一〇cm) 一〇cm크기의 자갈, 木炭片 一個

- II層(一〇cm—二〇cm) 暗褐色 砂質層 無文土器若干
- III層(二〇cm—五〇cm) 明黃色 砂質層, 石英片 一個, 斑岩製 打製石器 및 主로 無文土器一括, 帶狀 손잡이 一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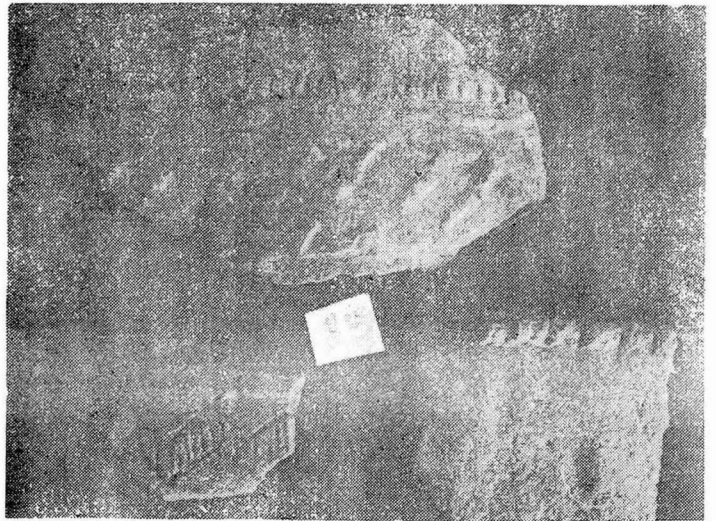
IV層(一〇cm—一五cm) 暗褐色 粘土 砂質層 櫛文土器 後身 三點 主로 隆起 文土器 一括, 平底 底部 三個, 斑岩製 打製石器, Shale製 打製石 器, 一括

地表面로부터 一〇五cm 以下는 生土層이며 그 以下는 花崗石 腐蝕層이 계속된다.

以上과 같은 明確한 四個의 層位를 區分할 수 있었으나 生土面이 西北으로 傾斜된 關係로 西로 갈수록 遺物 包含層은 깊으며 또한 生土面까지는 二m를 上廻하고 있다. 土器와 石器는 主로 III層과 IV層面에 集中的으로 出土되며 III層은 主로 一·二cm의 두꺼운 無文樣의 土器가 大部分이나 IV層으로 갈수록 단단한 粘土層으로 櫛文土器로서는 末期에 屬하는 土器 및 隆起文土器가 出土되었다(사진上).

石器類는 九五%가 斑岩製로서 主로 第III層과 IV層間에 約 三〇cm 크기의 花崗岩을 五〇cm 範圍로 整然하게 一列로 쌓은 人工 石列을 中心으로 數많은 剝片과 함께 集中的으로 出土되었다. 이 石列이 南北方向으로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正確한 把握은 不能하였으나 上記諸事實로 미루어 보아 石器製作場所로서의 可能性이 있으며 西側內部로 갈수록 生土面까지는 깊으며 또한 多數의 遺物이 出土되는 點으로 보아 當時의 住居址의 附設 遺構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築設當時의 原狀을 그대로 保存하고 있어서 全히 後世의 攪亂 痕跡이 없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 이제 採集된 石器를 材料 및 種類別로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搔器類 斑岩製 (一八個) Shale製(一個) (길이 幅 三cm의 크기가 多)
- 尖頭器類 斑岩製(一〇個) 石英製(二個) (三cm 크기가 多)
- 石刀類 斑岩製 (七個)
- 握斧類 " (一個)
- 母石 " (七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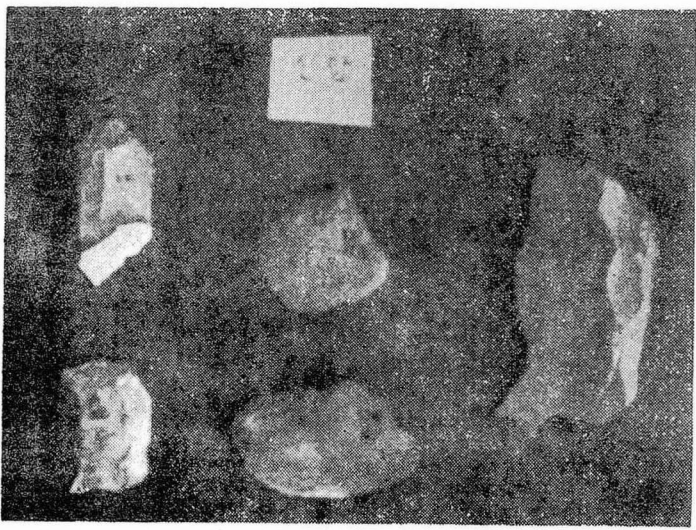


斑岩 剝片 一九點、
石英片 二點、流紋岩
片 二點、砂岩片 二
片(二五片)
(서울大學校 地質
學科 李商萬教授 鑑定)

III

以上과 같이 七〇
點에 達하는 石器中
그 使用이 確實한 것
은 三八點에 不過하
며 搔器類가 이 ass-
enblage의 過半을 차
지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例外없이 臺
石方法 (block on-
block)에 依하여 크
게 떨어져 진板石 (flake
block)를 必要에 따라서는 再次 加工하여 만든 片 雙系 石器로서 明確한 打面, 打痕과 剝離痕(사진下)을 보이고 있다. 石器 製作上 이 와 같은 片 雙系 石器는 東南亞 一帶의 자바, 中國의 周口店, 丁村, 山頂洞(世界考古學大系 五卷), 威鏡道 屈浦里(都有浩·考古學雜誌 五〇卷 三號)와 通하는 바 있고 距離上 가까운 公州 石壯里 遺蹟에 關하여는 아

직 報告書가 未刊이므로 詳細한 것은 알 길이 없으나 一九六三—一九六四年까지 延大에 客員學者로 와 있던 A. Mohr 氏와 함께 遺蹟 調査時 그 遺蹟發見의 直接的인 端緒가 되었던 二—三片의 斑岩製 flake와는 그 石器 形態, 製作 方法, 剝離 技術上 全혀 同一한 것은 特히 注目되는 바이며 表土에서 數片의 櫛文土器가 出土되고, 보다 가까운 石層에서 主로 斑岩製 石器가 集中的으로 出土되는 事實(孫寶基·考古美術 六卷三·四合併號) 등은 서로의 類似性을 內包하고 있으며 時期上 差異는 있으나 蔚山附近出土 石器(一括)金元龍·蔚山郡 下廂面 蔣峴里出土의 石器·土器——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은 忠南地方과 密接한 關係를 말하여 주는 좋은 資料라고 하겠다.



今年度 正式 發掘에 앞선 簡單한 豫備 調査이었던만큼 더 욱 詳細한 것은 今後 밝혀질 것이나, 이와 같이 櫛文土器 末期에서 赤褐色無 文土器로 移行하는 時期에 이와같은 多數의 打製 石器를 出土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意義가 크며 앞으로 正式 發掘에 依하여 正確한 年代 및 性格이 究明될 것이다.